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및 후보들이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며 환호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비례대표 후보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당 개표상황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

범야권 200석 안팎 압승...국힘 '침울' 민주 '환호'

한동훈 10분만에 이석... 출구조사 결과 실망스럽다

이재명, 압승 예측에 긴장 풀려...당직자, 일제 환호

여야는 10일 범야권 압승이라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잠정적인 성적표가 예상되는 여당은 침울했고 압승이 예상되는 야당은 잔치집 분위기였다.

국민의힘에서는 지상파·종편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탄식이 흘러나왔다. 출구조사상 예상 의석수는 위성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까지 합쳐 83~105석으로, 앞서 당에서 예상했던 110~120석 안팎 의석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결과다.

윤재옥 원내대표 등 선대위원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들은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이날 오후 5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선거상황실에 속속 모였다. 한 위원장은 오후 6시께 약간의 미소를 띠며 상황실에 도착했다.

참석자들은 상황실에 들어와 악수를 나누며 "고생했다" 등의 대화를 나눴다. 이후 이들은 자리에 착석해 턱을 괴거나 팔짱을 끼며 TV 중계 화면을 지켜봤다.

윤 원내대표는 조사 발표 전 SBS와 진행된 인터뷰에서 다소 굳은 표정으로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의석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께

서 일할 수 있는 최소의석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오후 6시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결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모두 합쳐 KBS 87~105석, MBC 85~99석, SBS 85~100석. 참석자들은 발표 순간 예상하지 못한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표정을 굳혔다. 한 위원장도 표정을 굳혔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지역구별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자 장내 분위기는 더욱 숙연해졌다. 경기 성남분당에서 안철수 후보 '경합'이 뜨자 한 위원장은 또 다시 한숨을 쉬었다.

서울 동작을에서 나경원 후보도 '경합'이라는 조사가 나오자 참석자들 사이에선 "아, 뭐야"하며 탄식이 흘러나왔다. 정진석 국민의힘 충남

광주·부여·청양 후보도 경합이 예측되는 결과가 나오자 한 위원장은 고개를 가웃했다. 윤 원내대표도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며 서류를 갖고 온 한 당직자에게 손사래를 치며 보냈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들도 TV 중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한 위원장은 막말 논란이 인 김준혁 민주당 경기 수원정 후보가 예측 '1위'로 나오자 다시 한숨을 쉬었다. 한편 강승규 국민의힘 충남 홍성예선 후보 1위 예측이 나오자 참관인석에서 한번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후에도 최민희 민주당 남양주갑 후보 우세, 김기표 민주당 경기 부천시 후보 등이 우세인 결과가 나오자 당 지도부는 연거푸 한숨을 쉬며 표정을 관리하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위원장은 출구조사 발표 직후 마이크를 들고 무거운 목소리로 "우리 국민의힘이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그렇지만 끝까지 국민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작게 미소를 지은 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곤 약 10분 만에 자리를 떴다. 일부 참석자를 제외하고 윤 원내대표와 선대위원 대다수도 자리를 떠났다.

반면 민주당은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3사 모두 과반을 넘기는 압승을 전망하자 일제히 환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해찬, 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6

시께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마련된 당 개표 상황실에 모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봤다.

MBC 개표 방송을 지켜본 이재명 대표는 휴대폰을 보던 중 출구조사 발표 10초 전에 돌입하자 무표정으로 중계화면을 지켜봤다. 오후 6시 정각에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단독 과반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다는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자 대회의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의 압승 예측에도 침착한 상태를 유지한 채 행동 안 박수만을 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이어지자 이 대표는 긴장이 풀린 듯 왼편에 앉은 홍익표 원내대표와 그 옆자리를 지킨 김부겸 위원장과 악수했다. /뉴스

마지막 불씨 되살아날까...이낙연 캠프 침통

출구조사 결과 득표율 17% 불과... "정식 개표 봐야"

"출구조사는 출구조사일 뿐." 1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수완동 광주광산을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 선거캠프.

이날 오후 6시 출구조사 발표가 진행되면서 캠프는 삼시간에 침통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17%에 불과한 출구조사 득표율 집계 장면이 화면에 표출되자 이 후보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었다.

장내 분위기가 마치 숙연해지자 이 후보를 지지하러 모여든 지지자 50여명도 선불리 입을 떼지 못했다.

이 후보는 개표 방송을 30여분 지켜보며 팔짱을 끼거나 뒷목을 긁는 가하면 참모진과 귀속말을 속삭이기도 했다.

개별 인터뷰를 사양한 이 대표는 모여든 취재진을 향해 "출구조사는 출구조사일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식 개표를 지켜보겠다" "경쟁

하 엄중한 결과가 나왔다"고도 평가했다.

성원을 보내준 광주시민들을 향해서는 "그동안 저희의 말을 들어주신 광주 시민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광주 미래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며 짧은 인사를 전했다.

입장을 밝힌 이 후보는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으며 캠프를 떠났다. 이 후보는 늦은 오후 캠프로 돌아와 지지자들과 개표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

지지자들도 이 후보의 말에 동감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한 지지자는 "광주와 호남의 민심을 믿고 있다. 끝까지 이 대표와 함께 자리를 지킬 것"이라며 "마지막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이 후보를 응원했다. /김도기 기자

녹색정의당 0석 전망에 낙담

"반성과 성찰하겠다"

녹색정의당은 4·10 총선 출구조사 결과 0석으로 원외 정당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낙담하는 모습이었다.

10일 오후 6시께 발표된 KBS·MBC·SBS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녹색정의당은 지역구와 비례대표에서 단 한석도 얻지 못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김준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선대위 지도부, 비례대표 후보자들은 오후 5시30분께 개표상황실에 모였다. 이들은 다소 긴장한 듯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조조하게 화면을 바라봤다. 0석 전망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선대위 지도부들은 일제히 침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충격적인 결과에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긴 침묵을 이어졌다.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듯 말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5일 각 지역 사전투표소에서 이재명(왼쪽 사진부터)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전 투표를 하고 있다.

[출구조사] 비례의석...국힘 17~19석 조국 12~14석 민주 12~14석

국민의미래 35.1% · 조국혁신당 26.3% · 민주연합 26.2% 개혁신당 3.9% '1~3석' · 새로운미래 · 녹색정의당 0석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투표에서 국민의미래가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오후 6시 투표 종료 후 발표된 KBS·MBC·SBS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46석을 결정하는 38개 정당 투표에서 국민의미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최소 17석에서 최대 19석으로 가장 많은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 12~14석, 조국혁신당도 12~14석으로 예측됐다. 개혁신당은 1~3석으로 예상됐다.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당별 득표율을 살펴보면 국민의미래가 35.1%로 1위, 조국혁신당이 26.3%로 2위, 더불어민주당이 26.2%로 3위를 기록했다. 4위부터는 개혁신당 3.9%, 자유통합당 2.5%, 새로운미래 2.0%, 녹색정의당 1.8%로 집계됐다. /뉴스

화제의 당선인

46년만의 전남 여성 국회의원... 권향엽 당선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후보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46년 만에 전남 지역 여성 국회의원 깃발을 꽂을 것으로 보인다.

권 당선인은 10일 오후 9시 기준 22대 총선 순천광양곡성구례를 개표결과 69.56%의 득표율을 기록해 국민의힘 이정현 24.65%, 진보당 유현주 5.7%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유력해졌다.

전남지역에서 여성 국회의원 당선은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 김윤덕의원 이후 46년 만이다.

권 당선인은 1968년생으로 전남

"중앙 정치 경험 토대로 도농 격차 줄이겠다"

광양이 고향이다. 금도초·태금중·순천여고·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뒤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공천위가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와 인연이 있는 권 당선인을 순천광양곡성구례를 지역에 단수 공천에 논란을 빚었다.

민주당 내에서도 찬반양론이 분분하자 경선이 결정됐으며 권 당선인은 당시 서동용 현역 의원을 누르고 지역구 후보로 나서 46년만에 전남 첫 여성의원 타이틀을 획득했다.

권 당선인은 당선 소감문을 통해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지역민은 46년 만에 전남 여성 정치인을 탄생시켰다"며 "지역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성실히 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 "중앙 정치 무대에서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도농 간의 격차를 줄이고 모두가 함께 잘 사는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며 "순천-광양-곡성-구례 상생클러스터 구축, 광양 제철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전남 동부권 통합물류센터 건립, 전남 동부권 의대 유치 및 대학병원 설립, 섬진강유역 환경유역청 설립 등 5대 공약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순천-조순의 기자

'큰 인물' 이낙연 잠재운 '친명' 민형배



광주 광산을 5선·전남도지사·총리·당대표·대권 주자 등 거물 정치인 이낙연 새로운미래 후보와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친명' 민형배 후보의 맞대결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던 곳이다.

선거 결과는 민 후보의 압승. 민 당선인은 10일 오후 9시50분 현재 중앙선관위 개표 결과(개표율 22.34%) 유효투표의 74.23%를 얻어, 15.20%에 그친 이 후보를 큰 표차로 앞섰다. 국민의힘 안태욱 후보 5.41%, 진보당 전주연 후보 3.95%, 녹색정의당 김용재 후보 1.18%다.

"정권심판론" 태풍이 잡자면 민

"시민들 국민의힘에 사망 선고"... "민주당서 광주의 몫 챙길 것"

심을 깨우는 한편 모든 선거 이슈를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됐다.

이 후보는 "광주·전남에 큰 인물이 필요하다. 민주당을 위해 종자는 남겨줘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기울어진 민심을 되돌리기에 역부족이었다.

민 당선인은 거물급 정치인과 대결에서 승리하면서 인지도 상승에 따른 정치적 입지를 확장했다.

민 당선인은 10일 "이번 총선 결과는 시민께서 국민의힘에 사망 선고를 내리고 민주당에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에 큰 힘을 실어주셨지만 한편으로 미덥지 않아 하겠다고 본다"며 "그래서 조국혁신당이란 대체제를 두고

사측생의 각오로 싸우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 독재의 확실하게 싸워서 당내 정치적 입지를 키우겠다. 그렇게 확보한 정치적 중립감을 토대로 광주가 가져야 할 정당한 몫을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민 당선인의 발언은 향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지도부 입성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 당선인은 "민주당 안에서 광주의 몫을 챙겨야 할 때는 동료 국회의원들과 정보를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겠다"며 "광주 정치의 효율성을 높여서 시민들이 정치의 효능감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동기 기자